

농촌의 다문화와 비 다문화 가구 청소년의 인성과 영향 변인 비교*

양순미^{a**} · 정민자^b · 오윤자^c

^a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b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복지학전공(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c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Comparison of the Personality and Its Impact Variables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in Rural

Soon-Mi Yang^a · Min-Ja Jung^b · Yoon-ja Oh^c

^a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b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Korea

^c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a differences of the factors affecting personality of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in rural area. The major findings that were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rist, the level of personality perceived by non-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was higher than it of the 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significantly.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personality was different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in rural area. The scholastic performance($\beta = .23$), namely,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personality perceived by adolescent of multicultural household, and the immersing time in internet game per one day($\beta = -.27$), on the other hand,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personality perceived by adolescent of non-multicultural household.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lans improving the personality of the rural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household adolescent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 personality, multicultural household, non-multicultural household

1. 서 론

청소년기는 생리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변화 등을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요한 생활도구로 자리 잡은 반면 공동체 활동이나 야외놀이 활동이 감소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회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기의

인터넷 게임몰입은 반두라(Bandura)가 주창한 모방학습이론의 차원에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왔는데 최두진, 오강탁, & 서보경(2011)은 19~39세까지의 인터넷 과몰입 인구 중 청소년 인터넷 과몰입 인구는 50.3%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itzpatric(2008)은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인터넷 과몰입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

주요어: 청소년, 인성, 다문화가구, 비 다문화가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2342015)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교신저자(양순미) 전화: 063-238-2646 e-mail: ysm@korea.kr

한 인터넷게임이 청소년의 중요한 놀이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청소년보호위원회, 2004)¹⁾으로 밝혀져 이러한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몰입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인성(人性, personal character, personality)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발달학자인 에릭슨(Erikson)에 의하면 청소년기²⁾는 성인으로의 전환기적인 생애주기로서 역할혼미를 겪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등 인성(人性, personal character, personality)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생애주기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과 갈등에 한 개인이 어떠한 인성을 지니고 대응하며 어떤 사회인으로 생활·성장해 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인성은 평생을 걸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어, 이들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인성발달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전과 환경이 인성발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가운데 김중백(2013) 등은 인성(人性, personal character, personality)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욱 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은 인성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성은 학자에 따라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Lickona(1999)는 어떤 덕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격교육은 민주주의적인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동선에 대한 관심, 합리적인 대화, 이의에 대한 관용, 공적인 생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같은 덕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은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생겨나는 양극화, 인간소외, 문화의식의 격차 등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성, 도덕성, 감성을 내포하는 등 보다 다차원적인 구조를 포함해야 할 것(김중백, 2013; 천세영 등, 2012)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급격히 외국인여성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현상이 깊어가는 농촌사회에 이제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 2세대 자녀들의 인구가 늘어가고 청소년 전체 인구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출생 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비 다문화가족의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김갑성, 2006). 그동안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온 여러 선행연구(권해수, 2011; 안혜령 & 이순형, 2009;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등)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언어 학습능력이 낮고,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외모의 차이·어머니가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발달특성들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견인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습득의 장애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연령에 부합되는 발달을 보였다는 연구(정은희, 2004)나 농촌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다문화적인 특성 보다 또래지지, 가족의 지지와 같은 관계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연구(양순미, 2007)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사회관계적 특성들이 후천적인 요인인 환경 및 교육 등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 및 관계 특성에 비추어 이들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여타 발달적 특성들이 다를 것으로 전제하며,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농촌의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인성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다문화가족 및 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이(남유정, 2005; 박은미, 1998; 윤미자, 2004; 한정호, 1985 등) 자원봉사, 사이버 문화,

1) 인터넷게임은 청소년의 중요한 놀이 수단으로서 초등학생의 84.4%, 중학생의 88.0%가 게임을 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2) 청소년기의 연령구분은 법이나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사춘기 연령층인 12-13세에서 성인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22-23세까지를 청소년기에 포함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인정 & 최해경, 2001).

부부폭력, 기독교 교육 등 개개의 단일한 변인들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약적이고 단편적으로 규명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놀이 경험 정도·인터넷 게임 몰입 시간·학업 성적·다문화활동 경험 정도·성별·연령 등의 변인들이 농촌의 두 청소년 집단의 인성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면서 향후 이들의 인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전통놀이 경험 정도나 인터넷 게임 몰입 시간 등을 선정하여 접근한 것은 첫째, 전통놀이는 인간발달 차원에서 전인성을 촉진하는 놀이로써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 사이에 이의 경험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이들의 인성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게임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놀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성에 미치는 이의 부정적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게임 시간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이러한 요인들이 이들의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농촌의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의 수준과 이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고찰

2.1. 농촌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생활환경 특성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문화시설, 교육여건의 부족(김진희 & 박옥임, 2008) 등으로 사회서비스 및 교육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 특히 어머니의 배경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도 등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주동범, 1998),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비 다문화가구의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김갑성, 2006),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

영달, 2006; 문화일보, 2006 등). Herman(2004)은 양쪽 부모가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경우 청소년 갈등은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생활문화경험의 빈곤이 전통놀이나 문화 체험을 통해 촉진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빈곤문제가 심각하며(여성가족부, 2007), 부부간 학력격차도 심하고(양순미, 2007 등),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자녀들의 학습부진 문제로 가중되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안혜령 & 이순형, 2009)고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07)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취학자녀 중 11.5%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상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조영달, 2006; 오성배, 2005). 이러한 지적들은 안혜령과 이순형(2009)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비 다문화가족의 아동들보다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5세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분석한 정은희(2004)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습득의 장애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연령에 부합되는 발달을 보여주었다. 양순미(2007)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또래관계 및 교사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적응문제나 발달특성이 정태적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발달가능한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 및 여타 발달적 맥락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농촌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성발달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인성의 개념 및 형성

2.2.1. 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인성은 사람의 성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이희승, 1989)을 의미하나 무엇에 역점을 두어 얘기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학

자들마다 그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여 왔다. 일례로 인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심리적 차원에서 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되고 통제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성숙 및 발달과 관련된 성격으로 규정 지어 왔다(전재선, 2011). 사회적 관점에서 인성은 인간됨의 가치척도를 의미하는데, 이때 인성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품성이나 덕목, 마음씨 등 윤리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Wynne & Walberg(1984)는 인성을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다운 마음과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인간환경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는 특성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한 연구자(우종욱, 2001 등)들은 개인의 감성능력과 적응력 그리고 사회 규칙에 대한 이해와 순응력, 도덕성 등으로 인성을 정의하고 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인성은 행동하는 방식으로 실천과 이론, 즉 **앎(knowing)**과 **함(doing)**의 특성을 갖는 것이며 이를 길러내는 것이 인성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Lickona, 1998).

그러나 인성의 개념이 이렇게 일 방향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어지는 경향에 대해 인성을 단편적이고 축소된 개념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면 전재선(2011)은 인성을 인간애, 긍정적 자아 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의 총 5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중 인간애는 이타심과 용서를, 긍정적 자아 개념은 자기개발과 주도적인 성취동기를, 사회관계는 자기조절·의사소통·공감적 이해를, 직무수행은 성실성·책무성·신뢰성을, 창의·인성의 범주는 유머와 위트·사회문제인식·창의적 성향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인성의 개념을 의미화하려 하였다. 강선보 등(2008)은 21세기형 인성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덕을 습득하는데 급급했던 경향으로 부터 벗어나 인간실존의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형 인성의 구성요소를 관계성(relationship; 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공생인), 도덕성(morality; 도덕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인격인), 전일성(wholeness; 인간의 모든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 영성(spirituality;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영성인), 생명성(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창의성(삶과 상황을 재창조하는 창의인), 민주시민성(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중백(2013)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인성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천세영 등(2012)의 연구에 기초해 인성이 도덕성, 사회성, 감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전

제하에 관련 지표를 정직, 정의, 법 준수, 책임, 공감, 소통, 배려, 협동, 자기이해, 자기조절로 설정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한편 교육부(2015)에서는 2015년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여기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로 삼는 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은 핵심 가치와 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중백(2013)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인성의 개념구조를 지지하며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관련된 하위영역을 정직, 정의, 법 준수, 책임, 공감, 소통, 배려, 협동, 자기이해, 자기조절로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2.2.2. 인성형성의 과정 및 이론

바람직한 인성상의 표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한 인간이 그가 속한 시대적,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요구와 자신이 갖는 역할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다(우종욱, 2001). Lickona(1999)는 어떤 덕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예컨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격교육은 민주주의적인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인격에 중요한 덕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동선에 대한 관심, 합리적인 대화, 이의에 대한 관용, 공적인 생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같은 요인들이 민주사회시민에게 요구되는 인성의 특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성의 발달이나 특성에 관한 논의는 학자들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유전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여왔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강선보 등, 2008; 김혜란 & 이창원, 2011 등)에서는 인성(人性, personal character, personality)을 개인의 품성·개인의 됨됨이·인격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며, 후천적으로 교

육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인성이 여러 인간발달단계에서 발달과업으로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학습이론에서는 인성은 생득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후천적 환경에서 주는 자극과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성은 자극-반응(S-R) 학습의 욕구감소설,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동일시(同一視), 관찰 학습의 역할 모델(roll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일례로 Rotter는 사회적 학습이라는 견지에서 강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성형성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서로 다른 강화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은 물론 서로 다른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는 꼭 강화의 가치가 숨어서 행동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과정이 바로 경험과 더불어 발달하고 그것이 바로 인성발달의 일면(一面)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최태하, 2004,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농촌의 다문화가구의 청소년 집단과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 집단의 인성 수준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또한 이들의 인성발달에 강화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요인특성을 규명하여 각각의 청소년 집단의 인성발달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2.3.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50년 동안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동안 자원 봉사활동(남유정, 2005; 이채하, 2001), 사이버 문화(윤미자, 2004), 음악치료(최승하, 2000), 부부 폭력(박은미, 1998), 기독교 교육(한정호, 1985), 색상 선호(이연숙, 이의준, & 정문자, 1986) 등과 같은 독립변인들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성을 규명하려 했으며 최근 전통놀이가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동정숙, 2014) 하는 등 다소 유사한 맥락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의 수적 측면이나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놀이, 인터넷 오락몰입시간, 다문화활동, 학업성적, 성별, 연령 등의 독립변인들이 농촌의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변인들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였다.

2.3.1. 전통놀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비 다문화가구의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김갑성, 2006).

여러 선행연구(동정숙, 2014; 박미조, 2010; 이성연 2011)에 의하면 전통놀이는 사회성 발달이나 서로 돕고 배려하는 등의 친사회적 능력 또는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통놀이는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가 높음 장르이며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태도를 익힐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부(1993; 동정숙, 2014, 재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놀이는 첫째, 즐거움을 주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다. 둘째,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규칙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협동과 상호존중의 가치를 터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역할이해, 경쟁, 양보,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사회적 규칙을 터득하게 된다. 그런데 또래관계는 애착형성을 통해 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tterson, Cohn, & Kao, 1989; van Aken & Asendorpf, 1997). 셋째, 언어발달과 사고발달을 촉진하면서 물리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또한 놀이 과정에서 문화행동을 습득하여 문화정체성의 발달을 돕는다. 넷째, 놀이를 통해 현실세계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욕구를 극화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통노랫가락이나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고유의 민족정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리 측면에서 전통놀이는 지, 덕, 체의 전인발달을 도우며 현재 우리의 교육에서 지향하는 있는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의 근간이다(동정숙, 2014)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놀이는 농촌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비 다문화가구의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김갑성, 2006)고 지적하고 있어서 전통놀이 경험이 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어

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이성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2.3.2. 인터넷 게임 시간

청소년기는 생리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변화 등을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에 의존하여 몰입하는 것은 건강한 이성발달을 저해하며 다양한 범죄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주애란, 2006).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 과몰입(internet game overindulgence)은 전자마약이라 불리며 그 피해가 심각하게 인식되어 왔다(강경두, 2013). 최두진, 오강탁, & 서보경(2011)의 자료에 의하면 19~39세까지의 인터넷 과몰입인구중 청소년 과몰입인구는 50.3%에 해당하며 이들 중 65.2%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을 게임(Game)이라고 하였다. Fitzpatric(2008)은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인터넷 과몰입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어기준, 2000; 황상민, 2002; Griffiths, 1996)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은 컴퓨터 등 기술문명과 친숙해지며 즐거움과 흥미, 도전정신을 길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중독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신체적 증상을 비롯하여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부적응,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 성격의 저하, 비행문제나 비현실적 욕구 추구, 충동조절장애문제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인터넷공간을 통한 청소년의 비도덕적 행동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족의 해체 및 도덕교육기능의 약화, 청소년 놀이 공간 및 문화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윤미자, 2004).

따라서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들의 이성발달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인터넷 게임 시간이 농촌청소년의 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 다문화가족의 컴퓨터 보유수준은 72.0%로써 2010년 우리나라 30대 가구주의 보유수준인 99.6%, 40대 보유수준인 97.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양순미, 2012)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시간이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 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특성이 이성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3.3. 다문화활동 경험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성찰하는 등의 일련의 의미도식 작업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즉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김혜은, 2012), 특정집단에 위협감을 느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하여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Tropp & Pettigrew(2005)는 집단내 접촉의 경험은 집단내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접촉의 맥락이 집단내 긍정적인 결과를 고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그러하다고 주장하면서 접촉을 통하여 다른 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상호 유사점을 발견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로 종단적 차원의 경험적이고 메타분석적인 여러 연구들(Levin, van Laar, & Sidanius, 2003; Wright et al., 2004 등)이 집단내 접촉이 집단간 편견을 감소하는 데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Tropp & Pettigrew, 2005, 재인용).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다문화교육 및 활동을 통한 다문화 접촉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줄이고 이성발달에 긍정적인 강화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특징이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2.3.4. 학업성적

이성특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신감, 독립성, 동조성, 사회성, 안정감, 사려성, 활동성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임재호, 2000).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사려성, 지배성 등의 이성특성이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김영신, 1985; 박숙정, 1993),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성, 성취성, 안정감, 자율성 등의 인성이 학업성취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의식, 1986).

2.3.5. 성별

성별에 따른 이성특성의 차별성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박숙정, 1993)으로 나타난 반면 김영신(198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동조성, 우월성이 높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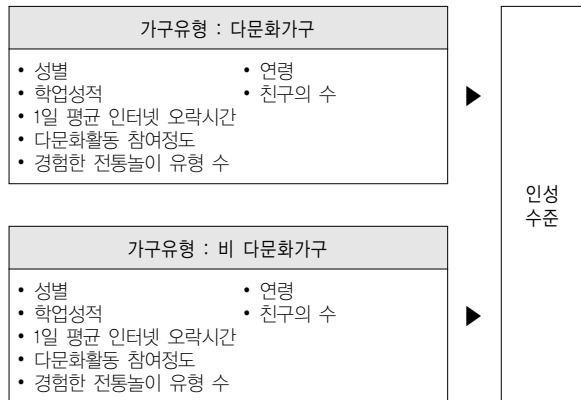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학업성과 성별이 청소년기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인성에 이를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하려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농촌의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의 수준과 이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모형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부터 중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이다.

조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의도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 8개도 교육청에서 다문화관련 시범사업 학교를 확인하여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전화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협조가 가능하다는 전국 8개도 5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고학년 이상, 중학교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학생들을 비례할당적으로 표집하여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통해 자기 기록식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751명이 조사되었는데 그중 다문화가구의 학생은 403명, 비 다문화가구의 학생은 348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약 53.7%는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이고 46.3%는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이었다. 응답자의 51.8%가 여학생이고 48.2%는 남학생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66.6%이며 중학생이 33.4%이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다문화가구청소년이 11.9세,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이 11.7세로써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약간 더 높았다<표 1, 2>.

3.3.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인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중앙일보사와 김종백이 공동으로 중학생의 인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김종백(2013)이 개발한 인성지수 척도로서 이 척도의

<표 1>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가구형태	성별			재학 학교 등급		
		남	여	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계
		n(%)	n(%)	n(%)	n(%)	n(%)	n(%)
다문화	403(53.66)	218(54.23)	184(45.77)	402(53.82)	257(63.77)	146(36.23)	403(53.66)
비다문화	348(46.34)	142(41.16)	203(58.84)	345(46.18)	243(69.83)	105(30.17)	348(46.34)
계	751(100)	360(48.19)	387(51.81)	747(100)	500(66.58)	251(33.42)	751(100)

<표 2>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평균 연령

통계량	가구형태	다문화	비다문화	계
M(S.D.)		11.91(1.88)	11.71(1.87)	11.82(1.87)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성격 및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가 대부분이며, 인성을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측정 도구가 사용되는 등 인성발달이라는 이름하에서 각기 다른 인성의 내용들이 각기 다른 측정도구들을 통해서 측정되고 있다(박성미 & 허승희, 2012)는 비판과 함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중백(2013)의 척도는 인성의 개념을 10개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정직을 측정하는 3문항, 정의 1문항, 법 준수 2문항, 책임 3문항, 공감 3문항, 소통 4문항, 배려 4문항, 협동 2문항, 자기이해 5문항, 자기조절 3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이들 지표들은 도덕성, 사회성, 감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각 영역에 따른 문항들은 전혀 그렇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배열된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전통놀이 경험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은 두꺼비집 짓기, 제기차기, 팽이놀이, 가마타기, 연날리기, 자치기, 숨바꼭질, 꼬리잡기, 땅따먹기, 공기놀이 등 10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제시된 놀이유형에 대해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놀이유형에 대한 인지오차를 줄이기 위해 놀이명과 사진을 동시에 예시로 제공하면서 경험여부를 명목형으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은 1개 문항으로 된 5점 서열형으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적을 측정하는 문항은 1개 문항으로써 하하(1)에서부터 상상(6)까지의 6점 서열형으로 구성하여 응답자 자신이 지각하는 수준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1개 항목으로 된 5점 서열형 척도로 구성하여 참여수준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중 성별은 명목형으로, 연령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4. 자료분석

자료의 최종분석에는 수집된 751명의 자료가 모두 이용되었다. 분석과정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t-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등이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농촌 다문화와 비 다문화 가구 청소년의 인성수준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3>,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수준은 백분위 79.4점,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은 백분위 82.2점으로써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보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영역별로도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이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 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정의, 법 준수, 책임, 공감, 소통, 배려, 협동, 자기이해 영역에서 모두 $p=.05\sim p=.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영역별 인성 수준은 10개 하위영역 중 정의영역이 약 88점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반면 자기조절영역이 약 76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성을 내포하는 공감이나 협동 하위영역은 도덕성을 내포하는 정의·법 준수·책임 하위영역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가구 및 비 다문화가구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성 및 정서적 차원의 인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이용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의영역이 가장 높고 정직영역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는 주장(김중백, 2013)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였다.

한편 <표 4>는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 특성을 학교등급별로 범주화하여 t-test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인성수준이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이러한 차이가 정직, 법 준수, 자기이해, 자기조절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공감과 소통하위영역에서는 중학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인성수준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보다 정직, 법 준수와 같은 도덕적 차원의 인성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 농촌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 수준

가구형태	인성	인성 총괄		하위영역 : 정직		하위영역 : 정의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다문화		95,22(12,32)	79,4	9,32(1,54)	77,7	3,44(0,70)	86,0
비다문화		98,64(12,81)	82,2	9,53(1,72)	79,4	3,57(0,63)	89,3
계		96,75(12,72)	80,6	9,41(1,63)	78,4	3,50(0,67)	87,5
t 값		-3,70***		-1,78		-2,74**	
가구형태	인성	하위영역 : 법 준수		하위영역 : 책임		하위영역 : 공감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다문화		6,32(1,11)	79,0	9,72(1,64)	81,0	9,91(1,65)	82,6
비다문화		6,50(1,08)	81,3	10,28(1,66)	85,7	10,30(1,64)	85,8
계		6,40(1,10)	80,0	9,98(1,68)	83,2	10,08(1,67)	84,0
t 값		-2,24*		-4,68***		-3,28***	
가구형태	인성	하위영역 : 소통		하위영역 : 배려		하위영역 : 협동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다문화		12,97(2,07)	81,1	12,26(2,18)	76,6	6,22(1,16)	77,8
비다문화		13,52(1,96)	84,5	12,74(2,26)	79,6	6,43(1,17)	80,4
계		13,22(2,04)	82,7	12,48(2,23)	78,0	6,32(1,17)	79,0
t 값		-3,70***		-2,92**		-2,53**	
가구형태	인성	하위영역 : 자기이해		하위영역 : 자기조절		/	
		M(S,D.)	백분위	M(S,D.)	백분위		
다문화		15,97(2,77)	79,9	9,06(1,84)	75,5		
비다문화		16,39(2,82)	82,0	9,26(1,87)	77,2		
계		16,16(2,81)	80,8	9,15(1,86)	76,3		
t 값		-2,06*		-1,49			

* p < .05 ** p < .01 *** p < .001

4.2. 농촌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관련 변인 특성

4.2.1. 학업성적, 인터넷 오락시간 변인 등의 특성

<표 5>와 <표 6>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 모두 중상수준에 각각 36.6%, 35.5%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중하, 상하수준의 순서로 높게 응답하였다. 평균학업성적 수준은 다문화가구 청소년이 중상을 밀도는 수준(3.58),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중상 수준(4.03)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안혜령 & 이순형(2009)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방과후에 즐기는 1일 평균 인터넷 오락시간은, 거의 안한다고 응답한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약 33.6%, 비 다문화가구는 45.0%이었다. 약 1시간이라고 응답한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약 32.1%, 비 다문화가구는 29.2%이었다. 약 2시간이라고 응답한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약 24.6%, 비 다문화가구는 16.1%이었다. 평균적으로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약 1시간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방과후에 인터넷 오락을 즐기는 반면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약 1시간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계원(200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14.5%가 하루 평균 1시간 이하, 31.8%가 2시간, 16.9%가 3시간, 15.3%가 4시간, 21.5%가 4시간 이상 인터넷작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 응답한 청소년들이 이계원(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인터넷 활용시

〈표 4〉 학교등급에 따른 농촌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 수준

학교등급	인성	인성 총괄		하위영역 : 정직		하위영역 : 정의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초등	97.48(13.13)	81.2	9.60(1.64)	80.0	3.53(0.69)	88.3
	중등	95.44(11.54)	79.5	9.06(1.52)	75.5	3.44(0.64)	86.0
	계	96.75(12.72)	80.6	9.41(1.63)	78.4	3.50(0.67)	87.5
t 값		2.06*		4.39***		1.73	
학교등급	인성	하위영역 : 법 준수		하위영역 : 책임		하위영역 : 공감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초등	6.48(1.09)	81.0	10.01(1.75)	83.4	10.08(1.75)	84.0
	중등	6.26(1.11)	78.3	9.93(1.50)	82.8	10.10(1.46)	84.2
	계	6.40(1.10)	80.0	9.98(1.68)	83.2	10.08(1.67)	84.0
t 값		2.63**		0.60		-0.13	
학교등급	인성	하위영역 : 소통		하위영역 : 배려		하위영역 : 협동	
		M(S.D.)	백분위	M(S.D.)	백분위	M(S.D.)	백분위
	초등	13.19(2.15)	82.4	12.56(2.28)	78.5	6.35(1.21)	79.4
	중등	13.30(1.80)	83.1	12.32(2.12)	77.0	6.25(1.08)	78.1
	계	13.22(2.04)	82.7	12.48(2.23)	78.0	6.32(1.17)	79.0
t 값		-0.73		1.38		1.12	
학교등급	인성	하위영역 : 자기이해		하위영역 : 자기조절			
		M(S.D.)	백분위	M(S.D.)	백분위		
	초등	16.34(2.84)	81.7	9.27(1.86)	77.3		
	중등	15.82(2.70)	79.1	8.92(1.82)	74.3		
	계	16.16(2.81)	80.8	9.15(1.86)	76.3		
t 값		2.39*		2.40*			

* p < .05 ** p < .01 *** p < .001

간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제외하고 인터넷오락에 몰입하는 시간만을 측정한 반면 이계원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생기는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이 응답한 친구 수는 평균 각각 8.36명, 9.35명으로써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이 응답한 친구 수가 더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2.2. 다문화교육 및 전통놀이 경험수준 변인의 특성

〈표 5〉과 〈표 6〉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경험은,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의 경우 4~6회에 약 57.0%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1~3회에 약 40.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평균적인 참여경험 수준은 다문화가구 청소년이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보다 p=.001 수준에서 높았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등의 의미도식작업을 하며(김혜은, 2012), 집단내 접촉의 경험은 집단내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Tropp & Pettigrew, 2005)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 참여

(표 5)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

학업성적								
가구형태	집단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하	상상	계
		n(%)	n(%)	n(%)	n(%)	n(%)	n(%)	n(%)
다문화		30(7.83)	31(8.09)	110(28.72)	140(36.55)	41(10.70)	31(8.09)	383(53.72)
비다문화		14(4.24)	13(3.94)	75(22.73)	117(35.45)	68(20.61)	43(13.03)	330(46.28)
계		44(6.17)	44(6.17)	185(25.95)	257(36.04)	109(15.29)	74(10.38)	713(100.00)
χ^2		26.70***						
방과후에 즐기는 1일 평균 인터넷 오락시간								
가구형태	집단	거의안함	약 1시간	약 2시간	약 3시간	약 4시간	계	
		n(%)	n(%)	n(%)	n(%)	n(%)	n(%)	
다문화		134(33.58)	128(32.08)	98(24.56)	27(6.77)	12(3.01)	399(53.85)	
비다문화		154(45.03)	100(29.24)	55(16.08)	21(6.14)	12(3.51)	342(46.15)	
계		288(38.87)	228(30.77)	153(20.65)	48(6.48)	24(3.24)	741(100.00)	
χ^2		13.36**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 경험								
가구형태	집단	전혀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이상	계	
		n(%)	n(%)	n(%)	n(%)	n(%)	n(%)	
다문화		31(7.73)	144(35.91)	102(56.98)	33(8.23)	91(22.69)	401(53.75)	
비다문화		69(20.00)	138(40.00)	77(22.32)	18(5.22)	43(12.46)	345(46.25)	
계		100(13.40)	282(37.80)	179(23.99)	51(6.84)	134(17.96)	746(100.00)	
χ^2		35.66***						
전통놀이 유형별 경험유무								
가구형태	유형 및 집단	두꺼비집 짓기			제기차기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n(%)	n(%)	n(%)	n(%)	n(%)	n(%)	
다문화	247(61.29)	156(38.71)	403(53.66)	330(81.89)	73(18.11)	403(53.66)		
비다문화	248(71.26)	100(28.74)	348(46.34)	306(87.93)	42(12.07)	348(46.34)		
계	495(65.91)	256(34.09)	751(100.00)	636(84.69)	115(15.31)	751(100.00)		
χ^2		8.27**			5.26*			
가구형태	유형 및 집단	팽이놀이			가마타기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n(%)	n(%)	n(%)	n(%)	n(%)	n(%)	
다문화	206(51.12)	197(48.88)	403(53.66)	134(33.25)	269(66.75)	403(53.66)		
비다문화	196(56.32)	152(43.68)	348(46.34)	163(46.84)	185(53.16)	348(46.34)		
계	402(53.53)	349(46.47)	751(100.00)	297(39.55)	454(60.45)	751(100.00)		
χ^2		2.03			14.42***			

(표 5 계속)

가구형태	유형 및 집단	연날리기			자치기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n(%)	n(%)	n(%)	n(%)	n(%)	n(%)
다문화		258(64.02)	145(35.98)	403(53.66)	35(8.68)	368(91.32)	403(53.66)
비다문화		248(71.26)	100(28.74)	348(46.34)	43(12.36)	305(87.64)	348(46.34)
계		506(67.38)	245(32.62)	751(100.00)	78(10.39)	673(89.61)	751(100.00)
χ^2		4.46*			2.70		
가구형태	유형 및 집단	숨바꼭질			꼬리잡기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n(%)	n(%)	n(%)	n(%)	n(%)	n(%)
다문화		372(92.31)	31(7.69)	403(53.66)	298(73.95)	105(26.05)	403(53.66)
비다문화		327(93.97)	21(6.03)	348(46.34)	274(78.74)	74(21.26)	348(46.34)
계		699(93.08)	52(6.92)	751(100.00)	572(76.17)	179(23.83)	751(100.00)
χ^2		0.80			2.36		
가구형태	유형 및 집단	땅따먹기			공기놀이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n(%)	n(%)	n(%)	n(%)	n(%)	n(%)
다문화		187(46.40)	216(53.60)	403(53.66)	347(86.10)	56(13.90)	403(53.66)
비다문화		212(60.92)	136(39.08)	348(46.34)	320(91.95)	28(8.05)	348(46.34)
계		399(53.13)	352(46.87)	751(100.00)	667(88.81)	84(11.19)	751(100.00)
χ^2		15.81***			6.43**		

각 변인별 집단의 %는 row percent를 의미함. 계의 %는 percent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 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 특성

가구형태	변인	학업성적	친구의 수	1일 평균 인터넷오락시간	다문화활동, 교육 경험회수	경험한 전통놀이의 수
		M(S.D.)	M(S.D.)	M(S.D.)	M(S.D.)	M(S.D.)
다문화		3.58(1.26)	8.36(11.09)	2.14(1.05)	3.02(1.29)	5.98(2.45)
비다문화		4.03(1.22)	9.35(12.16)	1.94(1.08)	2.50(1.23)	6.71(2.34)
계		3.79(1.26)	8.83(11.60)	2.04(1.07)	2.78(1.29)	6.32(2.43)
t 값		-4.81***	-1.15	2.50**	5.63***	-4.17***

** p < .01 *** p < .001

의 기회를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 가구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또래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양순미, 2007)는 연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활동들이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10가지 유형의 전통놀이별 경험유무에 있어서, 두꺼비집

짓기 놀이는 다문화가구청소년의 61.3%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71.3%가, 제기차기 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81.9%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87.9%가, 팽이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51.1%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56.3%가, 가마타기 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33.3%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46.8%가, 연날리기 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64.0%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71.3%가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치기 놀이는 다문화가구청소년의 8.7%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12.4%가, 숨바꼭질 놀이는 다문화가구청소년의 92.3%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94.0%가, 꼬리잡기 놀이는 다문화가구청소년의 74.0%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78.7%가, 땅따먹기 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46.4%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60.9%가, 공기놀이는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86.1%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92.0%가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보다 전통놀이 경험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꺼비집 짓기, 제기차기, 가마타기, 연날리기, 땅따먹기, 공기놀이에서만 $p=.05 \sim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 집단 모두가 자치기 놀이에 대한 경험정도가 가장 낮은 반면 숨바꼭질 놀이에 대한 경험 정도는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경험한 전통놀이 수는 전체 10가지 유형 중 평균 5.98형인 반면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은 10유형 중 평균 6.71유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이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보다 경험한 전통

놀이 유형이 적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놀이를 보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4.3. 농촌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4.3.1.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 관련 변인들의 상관성

농촌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인한 결과,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02~.29의 상관을,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00~.32의 상관을 보여 전반적으로 변인들 간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입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인호, 1983)는

〈표 7〉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관련 변인들의 상관성

가구유형	변인	1	2	3	4	5	6	7	8
다문화 가구	1. 인성	1.00							
	2. 성별	-.15**	1.00						
	3. 연령	-.06	.09	1.00					
	4. 학업성적	.29***	.03	-.09	1.00				
	5. 친구의 수	.04	.12*	.12*	.04	1.00			
	6. 인터넷오락시간	-.14**	.24***	.29***	-.13**	.05	1.00		
	7. 다문화활동경험	.15**	-.04	-.15**	.14**	.02	.05	1.00	
	8. 경험한 전통놀이 수	.19***	-.08	.05	.14**	.04	.03	.09	1.00
비 다문화 가구	1. 인성	1.00							
	2. 성별	-.10	1.00						
	3. 연령	-.14**	.00	1.00					
	4. 학업성적	.18***	.03	-.09	1.00				
	5. 친구의 수	.18***	.14**	.03	-.06	1.00			
	6. 인터넷오락시간	-.32**	.17**	.15**	-.03	.05	1.00		
	7. 다문화활동경험	.16**	.05	-.05	.10	.04	-.03	1.00	
	8. 경험한 전통놀이 수	.15**	-.07	.16**	.14**	.05	-.02	.04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농촌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효과

변인	가구형태별	다문화가구 청소년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	
		b(β)	VIF	b(β)	VIF
성별(남성=1)		-2.87(-.12)*	1.11	-2.63(-.10)*	1.06
연령		0.02(.00)	1.14	-0.90(-.13)**	1.07
학업성적		2.28(.23)***	1.07	1.52(.15)**	1.05
친구의 수		0.05(.04)	1.03	0.21(.21)***	1.03
1일 평균 인터넷오락 시간		-0.91(-.08)	1.19	-3.12(-.27)***	1.06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정도		0.84(.09)	1.06	1.20(.11)*	1.02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의 수		0.67(.13)**	1.05	0.70(.13)	1.07
intercept		83.59***		100.63***	
F 값		7.29**		11.95***	
Adj R-Sq		.108		.195	
D-W D		1.672		1.942	

* p < .05 ** p < .01 *** p < .001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모델의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7>.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은 상관정도는 낮지만 학업 성적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유의한 수준에서 이루었고 이어서 경험한 전통놀이 수, 다문화활동경험 정도 및 성별, 인터넷 오락시간의 순서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을 이루었다. 한편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변인은 상관정도는 낮지만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 수 및 다문화활동 경험과 가장 높게 정적 상관을 이루었으며 이어서 인터넷 오락시간과 부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을 이루었다.

이와 반면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들의 인성은 상관정도는 낮지만 인터넷 오락시간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이루었으며 학업성적과 친구의 수, 다문화활동 경험정도, 경험한 전통놀이 수, 연령의 순서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이루었다. 또한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터넷 오락시간 변인은 성별, 연령 변인과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따라서 농촌청소년들의 인성은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의 수, 인터넷 오락 시간 등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3.2.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투입식 중 다회귀분석(multiful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다문화가구 청소년과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회귀모델은 각각 1.67, 1.94로서 안정적이었다. 이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³⁾을 확인한 결과 모두 1.19 이하로서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변인들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다문화가구 모델의 경우 Adj R2가 약 11%, 비 다문화가구 모델의 경우 Adj R2가 약 20% 수준으로써 비교적 낮은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

동시 투입식 회귀분석에 의하면,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가장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학업성적(β=.23)이었으며, 다음은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의 수(β=.13), 성별(β= -.12)이었다.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가장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1일평균 인터넷 오락시간(β= -.27)이었으며, 다음

3)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확대요인)는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김충연, 1997), 본 연구의 회귀모델에서 각 변인들의 VIF는 모두 1.19 이하로써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은 친구의 수($\beta=.21$), 학업성적($\beta=.15$), 연령($\beta= -.13$),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정도($\beta=.11$), 성별($\beta= -.10$)이었다. 즉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이 많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성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1일 평균 인터넷오락 시간이 짧을수록,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인성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놀이가 사회적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동정숙, 2014; 박미조, 2010; 이성연, 2011),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주애란, 2006),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이 다문화 편견을 감소하고 공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고 성찰하는 의미도식 작업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주장(김혜은, 2012; Tropp & Pettigrew, 2005), 학업성적이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인성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김영신, 1985; 박숙정, 1993) 등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학업성적이 무의미하게 작용한 양순미와 유영주(2003)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인성이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동조성, 우월성과 같은 인성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높았다는 연구(김영신, 198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별에 따른 인성수준의 영향정도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써 인성의 개념 및 하위영역에 따라 성별변인이 인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표 7>에 의하면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업성적변인은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 수와 상관의 수준은 낮지만 가장 중요하게 상관($r=.14$)을 이루며,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업성적도 이들이 경험한 전통놀이 수와 상관의 수준은 낮지만 가장 중요하게 상관($r=.14$)을 이루었다.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에 직·간접적으로 전통놀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1993; 동정숙, 2014, 재인용)의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는 지·덕·체의 전인발달을 도우며, 상상력

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등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장르이면서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태도를 익힐 수 있는 도구로써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의 근간(동정숙, 2014, 재인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는 1일 평균 인터넷오락 시간이 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이 변인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1일 평균 인터넷오락 시간변인의 특성에서도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어기준, 2000; 황상민, 2002; Griffiths, 199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 대인관계 부적응,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 성적의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인성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 인성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내에서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강선보 등, 2008)는 주장이나 Rotter의 인성형성이론을 통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강화의 가치가 숨어서 행동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과정이 바로 경험과 더불어 발달하고 그것이 바로 인성발달의 일면(一面)을 이루게 된다(최태하, 2004, 재인용)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구 청소년과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 정도가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인 것은 두 집단이 경험하는 농촌이라는 환경적 맥락은 유사하지만 가족문화환경은 상이해 두 집단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방식이나 행동패턴들이 다르므로써 비롯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두 집단의 인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의 수, 친구의 수, 인터넷오락 시간, 다문화활동 및 교육참여 정도 등은 공통적으로 사회성⁴⁾ 및 대인관계적 특성을 내포하는 요소로써 농촌 다문화가구 및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는 사회적 인식능력과 대인 관계능력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들이 사회적 존재로써 인간의 사고나 행동 측면을 완성하고 융화하는 대인관계적 특성을 함양하고 신장해 가도록(김중백, 2013) 다양한 전통놀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 게임시간을 감소하도록 유도하며, 다문화활동 및 교육의 체험기회를 확충해 서로

4) 천세영 등(2012)은 인성을 3가지 차원 즉 도덕성, 사회성, 감성으로 설명하였는데, 사회성은 사회적 인식능력과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인식 능력에는 타인의 사고·감정·관점에 대한 인식능력, 문화적 이슈에 대한 인식능력 등이 포함된다. 대인관계능력은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유지 위해 의사소통·타협·협력하는 능력과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다름과 이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신장함으로써 농촌 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식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촉진하는 등 건강한 인성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농촌의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 연구들이(남유정, 2005; 박은미, 1998; 윤미자, 2004; 한정호, 1985 등) 자원봉사, 사이버 문화, 부부폭력, 기독교 교육 등 개개의 단일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변인들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약적이고 단편적으로 규명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 경험유형의 수 · 인터넷 오락시간 · 학업성적 · 다문화활동 경험 정도 · 성별 · 연령 등의 변인들이 농촌의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 집단의 인성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면서 향후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제안하면,

첫째,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학업성적($\beta = .23$), 경험한 전통놀이 유형의 수($\beta = .13$), 성별($\beta = -.12$)이었다. 반면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1일평균 인터넷 오락시간($\beta = -.27$), 친구의 수($\beta = .21$), 학업성적($\beta = .15$), 연령($\beta = -.13$), 다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정도($\beta = .11$), 성별($\beta = -.10$)이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구 청소년과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 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두 집단이 경험하는 농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유사하지만 가족 및 문화적 환경은 다소 상이해 두 집단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방식이나 행동패턴들이 다르므로써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인성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내에서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강선보 등(2008)의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및 제도적 방안들은 청소년 개인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생태체계적 환경을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사회친화적인 차원으로,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신장하는 차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강화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콘텐츠는 다소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학업성적을 향상하거나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건강한 놀이 및 관계 향상기회를 제공해 인터넷오락에 몰입하는 생활태도 및 의식을 환기하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구($r = .14$)와 비 다문화가구($r = .14$)의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이들이 경험한 전통놀이 수와 상관정도는 낮지만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즉,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립변인들 중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변인인 학업성적은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이 경험한 전통놀이의 유형 수와 가장 중요하게 상관($r = .14$)을 이루며,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 세 번째로 유의성 있게 중요하게 작용한 변인인 학업성적도 이들이 경험한 전통놀이 수와 가장 중요하게 상관($r = .14$)을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구 또는 비 다문화가구 등의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직 · 간접적으로 전통놀이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부(1993; 동정숙, 2014, 재인용)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가 지 · 덕 · 체의 전인발달을 도우며, 언어발달과 사고발달을 촉진하면서 물리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장르이면서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태도를 익힐 수 있는 도구로서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의 근간으로 작용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패키지형 또는 캠프형 또래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다양하게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에는 1일 평균 인터넷 오락 시간이 부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청소년기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주요 원인이 도덕 교육기능의 약화, 청소년 놀이 공간 및 문화의 부족 등이라는 지적(윤미자, 2004)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인성발달을 유도하는 도덕적 교육기능을 강화하거나 전통놀이활동 등 건전한 대체놀이의 참

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은 Bandura의 공격성 모방이론이나 Berkowitz(1984)⁵⁾의 탈억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오락이나 게임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건강한 인성발달을 저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용자가 어떤 강화를 받고 어떤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매체의 내용을 모방하거나 반응하는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서, 단순히 농촌청소년들이 인터넷 오락게임을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보다 도덕성을 강화하거나 건전한 대체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인성발달을 저해하는 인터넷 및 시청각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인성발달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들의 인성수준을 분석한 결과, 10개 하위 영역 중 정의영역이 약 88점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반면 자기조절영역은 약 76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성을 내포하는 공감이나 협동 하위영역은 도덕성을 내포하는 정의·법 준수·책임 하위영역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가구 및 비 다문화가구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육, 또는 자아통제 및 자아효능감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다 심도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농촌 청소년들의 인성 특성을 학교등급별로 범주화하여 t-test한 결과,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은 정직, 법 준수, 자기이해, 자기조절 영역에서 p=0.05 수준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을 생애발달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타임 스케줄형으로 특화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러한 심리사회발달이 점성원칙(epigenetic principle)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로 인성수준 및 발달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추적·도식화하는 연구작업들도 필요하

다고 본다.

이 연구는 농촌의 청소년 즉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성수준과 관련변인의 수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델의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²)가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모델은 약 11%,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모델은 약 20% 수준으로써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가족환경변인이나, 부모영향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농촌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인성의 개념 및 척도는 김종백(2013)의 연구를 인용하였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인성을 측정·설명하기 위해 절제성, 양심성, 온유함, 사회성, 자연친화성과 같은 하위영역을 아우르는 척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구와 비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인성 수준을 높다 또는 낮다고 본문에 기술한 것은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차원의 특성을 해석·기술한 것으로서 이의 인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강경두. (2013).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운동효과: 심리, 뇌활성화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 고미숙. (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 연구*, 30, 1-38.
3. 강의식. (1986). 고등학교학생의 성격특성과 학업성적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권해수. (2011). 농촌 국제결혼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8(1), 35-72.
5. 김갑성. (2006).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종백. (2013). 인성교육지원법 마련을 위한 세미나.

5) Bandura의 공격성 모방이론이나 Berkowitz의 탈억제이론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논점은 특정매체에서 보이는 폭력/비행 행동을 인간이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강화를 받는가, 어떤 성격이나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반응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황상민, 2002).

6) Erikson(1968)에 의하면 점성원칙(epigenetic principle)이란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며 이 기초안으로 부터 부분이 발생하고, 각 부분이 특별히 우세해 지는 시기가 있으며, 이 모든 부분이 발생하여 가능하는 전체를 이루게 된다. 또한 각 요소는 결정적 시기가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이인정 & 최혜경, 2001, 재인용).

- 중학생들의 인성현황.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 국회스카우트 의원 연맹, *인성이 미래다*(pp. 19-30). 서울.
7. 김진희, &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8. 김영신. (1985). 중학생의 성격특성과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김인호. (1983). *회귀분석론*. 서울: 비봉출판사.
 10. 김충련. (1997). *SAS라는 통계상자*. 서울: 데이터플러스.
 11. 김혜란, & 이창원. (2011). 한국인의 인성 특성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9(2), 214-226.
 12. 김혜은. (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13. 교육부. (201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14. 남유정. (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의산시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동정숙. (2014). 유아가 재구성한 전통놀이 활동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문화일보. (2006). 혼혈아 '말 어눌하다' 또래들 따돌림 심해.
 17. 박미조. (2010). 통합교육환경에서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박성미, & 허승희. (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35-47.
 19. 박숙정. (1993). 인성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박은미. (1998). 부부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5, 529-555.
 21. 전재선. (2011).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23.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 연구*, 8(1), 41-56.
 24. 주애란. (2006). 중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입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6. 안혜령, &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27.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감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28. 양순미. (2012). *농촌 다문화가족 자립실태 및 지원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9. 양순미, &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30. 어기준. (2000).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In 한국청소년상담원(김진숙, 최수미, & 강진구), *청소년의 pc중독*(pp. 9-29). 서울: 신일문화사.
 31. 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과천: 여성가족부.
 32. 우종옥. (2001).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33. 윤미자. (2004). 사이버 문화가 청소년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4.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35.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 이성연. (2011). 집단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이연숙, 이의준, & 정문자. (1985). 취학전 아동의 색 선호와 인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65, 113-122.
 38. 이인정, & 최해경. (2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39. 이채학. (200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 안양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이희승. (1989).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41. 임재호. (2000). 인성특성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천세영, 김왕준, 성기욱, 정일화, 김수아, & 방인자. (2012). *인성교육 비전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43.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44. 최두진, 오강탁, & 서보경. (2011).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45. 최승학. (2000). 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업무연구논집*, 3, 505-555.
 46. 최태하. (2004). *맞벌이가정 아동과 홀벌이가정 아동의 인성 특성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7. 황상민. (2002). 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 문제의 이해-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갈등과 통합. *인터넷 법률*, 12, 105-124.
48. 한정호. (1985). 청소년의 인성구조에 기독교 교육이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9. Ber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50. Fitzpatrick J. J. (2008). Internet addiction: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2), 59-60.
51. Griffiths, M. D.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52. Herman, M. (2004). Forced to choose: Some determinants of racial identification in multiracial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3), 730-748.
53. Lickona, T. (1999).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20(4), 77-84.
54. Patterson, C. J., Cohn, D. A., &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21-38.
55. Tropp, L. R., & Pettigrew, T. F. (2005).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among minority and majority status 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51-957.
56. van Aken, M. A. G., & Asendorpf, J. B. (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s, friends and siblings in preadolescents: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9-93.
57. Wynne, E., & Walberg, H. (1984). *Developing character: Transmitting knowledge*. Posen, IL:ARL.



Dr. Soon-Mi Yang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where she has studied rural families, the age, and the rural welfare since 1995. She got a Ph. D. at the Kyung-Hee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are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 (55365)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
 phone) 82-63-238-2646



Min-Ja Jung is a professor at Ulsan university, where she has taught family studies and welfare. Her research interests ar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issues, family counselling, and family strength.
 Address: (44610) 93 Daehak-ro,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E-mail) mjagnes@mail.ulsan.ac.kr
 phone) 82-52-259-2366



Yoon-Ja Oh is a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where she has taught family studies and welfare. Her research interests ar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issues, family counselling, and family strength.
 Address: (02447) 26 Kyunghedae-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yoonja@khu.ac.kr
 phone) 82-2-961-0510

Received 11 November 2015; Revised 03 December 2015; Accepted 11 December 2015